



시대 변화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지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노동조건과 고용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유해요인과 직업병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산업보건은 그 변화를 살피면서 직업병의 원인을 규명해 왔다. 산업보건의 역사는 곧 도전의 역사였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산업보건 태동산업에 대한 성찰과 미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산업보건학회 2023 하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원지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산업보건 발원지에서 열린 학술대회

강원도 정선과 태백 일원은 ‘석탄산업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한국산업보건학회가 강원도 정선을 학회 장소로 선택한 이유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인 진폐증이 규명된 곳이기도 하다.

하계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는 2일 차인 8월 31일 개회식과 기초강연이었다. 탄광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정지연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산업보건 역사 재조명

특히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역사를 강조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출발은 미군정기인 1947년 11월 20일 조선산업보건협회가 창립이었다. 조선산업보건협회는 정부 수립 뒤인 1949년 대한산업보건협회로 확대됐다.

그리고 협회 창립 주역인 최영태 박사는 1952년 장성광업소로 내려와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인 진폐증을 규명했다.

백 회장은 "정선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발자취가 남겨

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지난 시기의 산업보건 활동을 되돌아 보고 산업보건운동의 궁극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홍춘봉 프레시안 기자의 ‘탄광촌 광부와 진폐환자들의 애환’, 김현욱 학회 고문의 ‘석탄광업과 산업보건’, 최병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의 ‘국내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의 기초강연이 이어졌다.

홍춘봉 기자는 1980년 4월 사복사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 탄생 등의 역사를 설명했다. 김현욱 학회 고문은 석탄산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초기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개척한 최영태 박사과 조규상 박사 등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사업장과 학계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777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호흡보호구 실습 ▲산업보건 개론 리뉴얼(산업안전보건법령, 역학) ▲ 산업보건 개론 리뉴얼(화학적, 생물학적인자) ▲위험성 평가와 보건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첫째 날 행사에서는 태백산 석탄박물관에서의 체험교육과 실제 강도 체험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광산의 현장감을 제공해 광부들의 작업환경을 간접경험하기도 했다. ☺

